여수시, 환경도서관 리모델링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향후 도서관 운영방향·공간구성 등 제안
이번 용역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 확정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최근 '환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환경도서관은 지난 2007년 건축 후 시설노후화로 여문지구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시설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지난 3월 착수를 시작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됐다.

보고회는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 신병은 도서관 운영위원장, 관련부서 등 20여명이 참여해 향후 환경도서관의 운영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보고는 용역을 담당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홍렬 책임연구원이 맡았다.

이순신도서관 건립과 여문공원 아이나래 놀이터 신설 등 주변변화에 발맞춘 환경도서관 만의 차별화 및 특화도서관으로서의 운영을 전제로 한 리모델링 안을 제시했다.

또 시설 리모델링 방향으로 어린이·청소년을 주 이용대상으로 생태·환경을 특화 주제로 정해 단편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도서대여 공간을 넘어 시민 문화향유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변화를 중점으로 제안했다.

여수시는 이번 용역을 거쳐 환경도서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24~2026년까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환경도서관을 성공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기틀이 될 것"이라며 "보고회에서 도출된 제안은 적극 검토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종민 기자

구례군 토지면 하죽마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구례군은 최근 토지면 하죽마을(이장 김선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토지면의 하죽마을은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마을에 꽃길을 조성하고 관광 홍보 간판을 설치하는 등 아름답고 아늑한 마을 경관을 조성해왔다.

올해도 주민들이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꽃밭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십시일반 준비한 점심을 함께하며 이웃 간의 정을 나눴다.

김선열 이장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덕분에 더욱 아름다운 마을 풍경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류효숙 토지면장은 "한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며 아름다운 마을을 함께 가꿔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면에서는 2023년 청정전남 으뜸만들기 사업대상으로 1년차 사업 대상 7개 마을을 포함한 총 22개 마을이 선정됐다.

각 마을에서는 마을 특색과 유래에 맞는 마을 가꾸기를 주민들이 직접 추진할 예정이다. /홍경석 기자

치열한 격전을 벌였던 광양의 산성들이 아름다운 풍광과 탁 트인 조망을 자랑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사색과 멍때리기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광양에는 마로산성, 불암산성, 봉암산성 등 백제시대에 축성된 석성과 고려시대에 축성된 토성인 중흥산성 등 4대 산성이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 4대 산성, 사색·멍때리기 명소로 각광

치열한 격전을 벌였던 광양의 산성들이 아름다운 풍광과 탁 트인 조망을 자랑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사색과 멍때리기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광양에는 마로산성, 불암산성, 봉암산성 등 백제시대에 축성된 석성과 고려시대에 축성된 토성인 중흥산성 등 4대 산성이 있다.

마로산성(사적 제492호)은 광양읍 북쪽 해발 208.9m 마로산 정상부를 감싸고 있는 테뫼식 산성으로 말안장처럼 가장자리는 높고 가운데는 낮은 마안봉 지형이다.

불암산성(도지정기념물 제177호)은 비촌마을 불암산 남서쪽 해발 231.5m의 봉우리를 긴 사다리꼴로 테를 두르듯 둘러쌓은 협축식 석성이다.

진월면 신아리 해발 170m 고지에 자리한 봉암산성(문화재자료 제263호)은 둘레 약 100m, 외벽 높이 90cm 소형 산성으로 '신아리 보루'로 불린다.

중흥산성(전라남도 기념물 제178호)은 6개 산봉우리, 골짜기 등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둘레 4Km의 포곡식 산성으로 고려시대 축성된 광양 유일 토성이다. /최종민 기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400만 돌파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장 58일 만에 관람객 400만 명을 돌파하며 800만 목표 관람객 수의 50%를 달성했다. 176일 만에 400만 명을 넘어섰던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비교해 3배가량 빠른 속도다.

차별성과 완성도를 갖춘 정원, 특히 2023정원박람회 'Big change 10'이라고 불리는 콘텐츠들은 단연 이번 박람회의 흥행 주역으로 꼽히고 있다. 그 중 오천그린광장은 YB밴드 콘서트, 최현우 마술쇼 등 문화공연들이 치러지는 문화공간이자, 시민들이 일상 속 쉼을 누릴 수 있는 삶 속 정원으로 자리해 국내 새로운 광장 문화를 태동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그린아일랜드, 가든스테이-쉴랑게, 정원드림호, 물 위의 정원은 국내 최초 순천이 처음으로 시도해 만들어 보인 정원으로, 도시 전역을 정원으로 삼아 새롭게 창조한 콘텐츠만 하더라도 전 국민의 발길을 끌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다.

또한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으로 관람객들이 집중되는 주말에도 교통대란 없이 쾌적한 관람을 가능케 했다는 점도 흥행 요인 중 하나다. 수준 높은 시민의식 역시 빠질 수 없다. 시민들은 차량 2부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주고 있으며,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자원봉사자 등은 현장에서 교통 지휘, 주차 안내 등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품격 있는 시민들이 함께 했기에 박람회 흥행은 더욱 빛나고 있다.

박람회가 미치는 경제 효과 역시 주목해봐야 한다. 박람회 자체 매출 현황만 보더라도 27일 기준 235억 원을 넘어섰다. 그 중 입장권 판매액은 15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식당과 카페, 편의점 등 식음시설은 48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 외 관람차, 스카이큐브, 정원드림호, 가든스테이 운영을 통해 29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최종민 기자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동행축제 진행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최근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 지역 어린이와 함께하는 동행 축제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곡성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이 주최하며 곡성중앙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학생들은 자신이 주도하는 장보기 체험을 통해 지역 농산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역 전통시장의 역할과 합리적인 소비 활동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70여 명의 학생들은 각각 1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고, 구입할 물건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이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곡성기차마을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그 경험을 담은 인증사진과 전통시장에 대한 4행시, 그리고 활동보고서를 사업단에 제출했다. 장보기를 끝낸 학생들은 달고나 만들기, 천연염색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지역 학생과 가족들의 참여를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는 전통시장을 보여줄 수 있어 소중한 행사였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통시장의 활기찬 모습을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곡성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은 전통시장의 홍보과 이미지 강화를 위해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동행축제'가 지속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제별, 분기별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심선섭 기자